

광주매일신문



제8654호 대표전화(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음력 2월 19일)

공식선거운동막올랐다…사활건 '13일 열전' 점화

◆총선 D-13

與"거야심판" vs 野 "정권심판" 내걸어 현재판세일단민주우세···중도층이관건 말실수·막말논란·투표율등변수는여전

앞으로 4년 간 국회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더불어민주 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28일부 터 13일 동안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벌 인다. ▶관련기사 3·4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기자 회견을 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 전을 공약하며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 거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 생을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벽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27일 오후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동남을 각 후보의 선거벽보를 살펴보는 등 정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일인 4월10일을 '윤석열 정권 심 판의 날'로 규정하고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 해진 민생 등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을 1차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해 과반 승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공천 국면이 마무리된 뒤 현재 판세는 일단 민 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양당의 대체 적인 분석이다.

양당 선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254 개 지역구 가운데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 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았다.

각종 여론 조사상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함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선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거대 양당에 가려 지지율에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이 막판에 중도·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며 선전할 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향방, 투표율 등이 으서 꼭하다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 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 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 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 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 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비례정당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하는 것도금지된다. /김진수기자

전대·조대의대교수 97명 사직서…진료 차질 심화우려

전대 56명·조대 41명···나머지 내일까지 제출 내주 준법투쟁 집단행동···의료 현장 위기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고 있는 기운데 광주지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어 진료 차질 심화가 우려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인주 52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광주·전남의사회도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의사협회장회의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전남대학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직서

를 제출한 교수는 총정원 283명 중 56명으로 집 계됐다

전남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오는 29일까지 교수들의 사직서를 일괄 취합해 4월1일 의과대학학과장실에 제출할지 여부 등 최종 대응 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

앞서 전남대 비대위는 의대 교수 273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참여한 257명(9 4%) 중 215명(83.7%)이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조선대의 경우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161명 가운데 41명이 사직서를 냈다. 조선대 비대위도 29일까지 사직서를 취합, 다음 주 중 의대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사직서 취합 상황을 공유하 고 차후 대책 논의 등 일괄 제출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대 비대위는 설문조사에서 161명 중 응답자 120명(78%)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다고 답해 참여 교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양 대학 비대위는 설문조사와 대책 논의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준법투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전남대·조선대병원은 다음 주부터 교수들의 근무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도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근무시간을 준법 형태로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2면에 계속 /김다이기자

무등산 수박 '푸랭이', 지오푸드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기대

무등산 수박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지오푸드에 등록된다. 무돌저잣거리동동 주, 전통두부, 청국장, 짚불오겹살, 백숙, 연잎 차, 허브차에 이어 8번째다.

광주시는 27일 무등산 수박 생산자 조합과 지 오파트너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무등산수박을 지오푸드(GEOfood)로 등록한다.

'지오푸드'는 세계지질공원 지역 향토음식 브랜드로 지질공원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생산 된 농산물·음식·음료에 국제적 브랜드를 적용 해 지질공원 식품에 경쟁력을 높이고 회원 지질 공원 간상호 홍보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광주에서만 재배 가능한 무등산 수 박 '푸랭이'의 스토리텔링을 담아 명성을 전 세 계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감칠 맛이 뛰어난 명품 수박으로 왕에게 올리는 광주 유일의 진상품이었다. 하지만 생산 농가들이 줄어들고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무등산수박생산자조합은 무등산수박을 이용한 상품 개발 및 제작과정에서 상호협의하고 상품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각적홍보활동을 추진키로했다. /박선강기자



+